

남성 택시 운전원의 근골격계 자각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

The Factors Related to Musculoskeletal Symptoms of Male Taxi Drivers

엄 미 정

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 및 지역사회간호학 전공

목적: 운수업 근로자는 직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에 노출되기 쉬우며 불건강 행태의 습관이 높아 근로자의 건강의식 고취 및 건강증진 향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. 본 연구는 남성 택시 운전원의 근골격계 질환 자각증상 호소율을 알아보고 일반적 특성, 건강행태 특성, 직무스트레스 수준 등 각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자각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운수업 근로자의 건강증진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.

방법: 본 연구는 서울, 경기지역의 남성 택시 운전원 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, 건강행태 특성, 직무스트레스 수준, 근골격계 자각증상 등을 조사하였다.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, 건강행태 특성과 근골격계 자각증상과의 관계는 Chi-square test, t-test을 실시하였고, 근골격계 자각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.

결과: 본 연구결과, NIOSH의 진단기준 1에 의한 근골격계 자각증상 호소자는 33.1%였으며, 근골격계 자각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주당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 주당 3회 미만 불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 근골격계 질환 유병에 13.770배 영향을 미쳤다($p=0.016$). 또한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근골격계 질환 유병에 1.051배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($p=0.011$).

결론: 본 연구를 통하여 조직차원의 직업적 특성요인 개선과 불건강 행태 및 직무스트레스 등을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건강증진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하겠다. 또한 택시 운송업의 경우 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자율보건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을 반영하여 사업장 자체의 효율적인 보건관리 제도 운영 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.

1) 지도교수 : 정혜선 교수